

中 전기차 출혈경쟁… 현대차그룹, 하이브리드 반사의 기대

중국 發 ‘치킨게임’ 글로벌 확대
中 비야디 등 가격 최대 47% ↓
아시아 전기차 가격 붕괴 현상

전기차 시장 세계적 성장 감소
하이브리드·친환경 내연차 성장

중국발 전기차 가격 덩핑 전쟁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으로 확대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 선두 업체인 BYD(비야디)의 선제적 가격 인하를 기점으로 업계 전반에 전기차 가격 붕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축소로 생산 물량 대부분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으로 쏟아지면서 전기차 시장의 출혈 경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990년대에 시작돼 20년 넘게 이어진 ‘메모리 반도체 치킨게임’이 자동차 업계에서도 재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



자동차 운반선 ‘BYD 선전’에 선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BYD 전기차들.

국은 최근 BYD, 지리자동차 등 주요 전기차 제조사 임원들을 베이징으로 소집해 과도한 할인 경쟁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전기차 성장률 감소는 최근 문제가 아니다. 실제 중국의 전기차 성장률은 2024년 19%를 기록하며 2023년(21%)과 2022년(74%)에 비해 크게 위축됐다.

전기차 시장 성장이 꺾이면서 중국 내 업체간 출혈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 달 23일 1위업체 BYD는 20개 이상 모델에 최대 34%까지 차량 가격을 인하했다. BYD가 공격적 마케팅에 나서자 리오토, 지리자동차, 체리자동차 등 기업들도 8~

47% 선의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1년 넘게 지속하는 중국 내 전기차 가격 경쟁을 ‘내부 소모형 경쟁’이라고 표현하며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들은 신차를 중고차로 등록해 ‘제로마일리지 차량’으로 판매할 정도로 재고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내 전기차 재고가 지난해 말부터 4월 말까지만 359만대에 달한다는 현지 보도가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는 재고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으로 판매처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국 시장의 경우 BYD가 3000만원대 가성비 모델인 아

토3로 고객 인도 두 달 만에 1000대 이상을 판매하며 가격 경쟁에 돌입했다. 결국 한국을 비롯한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전기차 출혈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중국 전기차 시장은 수요 부족으로 40%에 달하는 극단적인 가격 인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통합이 일어날 것”이라며 “500여개에 달했던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가 합종연횡을 통해 50여개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슬림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업체

들이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해외 수출에 집중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은 EV3를 비롯해 중저가 모델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과잉 생산된 재고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으로 판매처를 확대할 경우 시장 가격이 왜곡되는 등 혼란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불어온 캐즘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국내와 유럽, 미국 등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감소세를 기록하는 반면 하이브리드차(HEV)와 친환경 내연기관차량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필수 교수는 “전기차 캐즘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그 중간을 HEV와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가 메우고 있다”며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내연기관 모델의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도요타와 현대차그룹의 상승세를 눈여겨볼만 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수입감소 영향… 경상수지 57억달러 흑자

한국은행, 4월 국제수지

올해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 수출과 수입 간 격차를 뜻하는 상품수지가 89억 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영향이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입이 더 많이 줄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4월 국제수

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57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24개월 연속 흑자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다.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수출과 수입의 격차를 뜻하는 상품수

지는 89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면서 상품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587억 70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IT품목의 호조가 지속되고, 비IT 품목은 자동차 수출이 감소했지만 의약품, 철강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수입은 495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소비재 수입이 줄면서 감소로 전환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앞선 기술에 전폭적 지원 기술중심 의사결정 할 것”

SK하이닉스 이사회 한애라 의장

한애라 SK하이닉스 이사회 신임 의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 미래 전략으로 ‘기술 중심 의사결정’을 제시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성과를 넘어 차세대 메모리 경쟁에 있어 이사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회사 설립 이래 첫 여성 이사회 의장이 된 한 의장은 10일 SK하이닉스 뉴스룸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HBM”이라며 “다른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 전략이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지나해 최대실적 비결은 HBM 투자·개발 확대와 속도 조절이 AI시대 경쟁력 키우는 핵심전략”

이어 “앞선 기술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미래에도 중요하다”며 “저 역시 이를 유념하며 늘 기술 중심의 의사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HBM 이후 차세대 메모리를 준비하려면 ‘투자 및 개발 확대’와 ‘개발 속도 조절’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AI 시대 본원적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SK하이닉스가 이사회 중심의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선임된 한 의장은 법관과 변호사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0년부터 이사회에 합류해 감사위원으



SK하이닉스 첫 여성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한애라 신임 의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기 위한 전략 방향으로 ‘기술 중심 의사결정’을 제시했다. /SK하이닉스

로 활동하며 자배구조 개선과 기술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해 왔다.

SK하이닉스 측은 “AI 시대의 본원적 경쟁력을 뒷받침할 견고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복합적인 법률·지정학 이슈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한 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한 의장은 이사회의 역할이 단순한 경영 감독을 넘어 중장기 전략 수립과 사후 평가까지 확대되는 ‘이사회 2.0’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기술 중심의 전략 논의가 질적으로 강화되도록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SK하이닉스는 고성능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HBM 기술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한 의장은 “기술 전문가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는 구조가 SK하이닉스의 강점”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메모리 전략 수립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든든한 안전자산 노란우산

더 오래,
더 든든하게

사장님 곁에
언제나

홍보대사
박미선

홍보대사
탁재훈

소득공제
최대 600만원

복리 이자
목돈 마련

부금 내
대출 지원

공제금
압류 금지

KBIZ 중소기업중앙회

가입문의 1666-9988

*취급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필 제24-167호(2024. 12. 24. ~ 2026. 1. 31.)